

POL IN LOVE ————— B조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인터뷰 사업팀

2022. 2. 23. (수)



박효정

정치외교학과 19

- 조장
- 인터뷰 진행 및 속기 작성



김사빈

정치외교학과 19

- 조원
- 속기 작성 및 카메라 담당



정효린

정치외교학과 20

- 조원
- 카메라 담당 및 인터뷰 진행



인터뷰 준비과정

인터뷰

인터뷰이가 편안하게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인터뷰 장소에 도착해
카메라 설치와 인터뷰 진행방식 설명

02

01

기초조사 및 질문지 작성

인터뷰와 서적을 찾아보며
기존의 인터뷰 질문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게
진로와 인생에 대한 조언을 담을 수 있는
인터뷰 질문을 작성

03

인터뷰 기록 및 피드백

인터뷰 당시 느낀점과
수정할 점을 일지에 기록
인터뷰이에게 감사 인사 및 기사 피드백

1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

특별대표

"대외적 소통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철

외교분야 명사

외교부 장관보좌관

뉴욕, 코트디부아르,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근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한국 대표단 실무총괄

외교부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

* 사진출처 (뉴스1)





인터뷰 일시

2021. 09. 15.

16:00 ~ 18:00

인터뷰 장소

할리스 센터포인트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1F

역할분담

인터뷰: 박효정

인터뷰: 김사빈

속기: 정효린

인터뷰 방향성 및 질문

고려대학교 정외과 학생들에게 외교관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진로를 고민해 보는데 유익한 인터뷰

Q.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대표님께서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국제무대인 만큼 영어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대외적 소통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상대측과의 기본적 신뢰가 있어야 원활한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지 쉘츠(George Shultz) 전 미국 국무장관이 생전에 100세를 맞이하며 쓴 글(2020.12.11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돌이켜보니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은 결국 “신뢰”(trust)이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교관은 국익 반영이 본연의 임무이므로 당연히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한민국의 평화 ·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과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아마도 거의 유일한 나라 일 것입니다.

국제회의나 양자 협의 등에 참여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 사회 내에는 역경을 이겨 내며 이룬 우리나라의 이러한 성취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평화와 민주주의는 많은 희생과 기여를 통해 성취된 소중한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강민아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권한대행)

"기성 세대가 불편해 할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아

정치외교 분야 명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Women 20(W20)의 한국대표와 한국장학재단의 멘토

2018년 3월부터 감사원 최초 여성 감사위원으로 재직

*사진출처 (뉴스시스)

인터뷰 일시

2021. 11. 24.
15:00 ~ 17:00

인터뷰 장소

삼청동 감사원

역할분담

인터뷰: 박효정
속기: 김사빈
장비: 정효린





인터뷰 방향성 및 질문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진로와 인생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인터뷰

Q. ‘최초의 여성 감사위원’이라는 수식어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
신 적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1963년부터 총 94명의 감사위원이 재직하였고, 그 중에서
제가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감사위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제게 늘 말할 수 없는 **영광이자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
다.

최초 여성 감사위원으로서의 제 역할은 무엇보다도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저는
국민의 안전, 환경, 젠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는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아마도
**여성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과 입장을 가
지게 되고 감수성이 좀더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Q. 대한민국의 평화 ·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 국민들도 각자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함께, 또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려면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흔히 얘기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이 들릴 수 있을 때 비로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 것과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것, 즉 다양성에 관해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력개발센터 원장 시절 얻었던 가장 큰 교훈은 '학생은 다양하다'입니다. 그들의 다양함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현

정치외교학과 선배

버지니아 주 폴스 처치(Falls Church)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응급구조대원
유케냐 나이로비 소재 유엔 나이로비 사무소 안전보안국 보안대 작전담당관 활동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임무단 (UNAMA) 현장보안담당관 및 상황실장
세계은행(World Bank) 본부보안과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활동

* 사진출처 (알라딘)





인터뷰 일시

2021. 10. 9.
8:00 ~ 11:00

인터뷰 장소

밀레니엄 힐튼 호텔 로비

역할분담

인터뷰: 임지현
속기: 박효정

인터뷰 방향성 및 질문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진로와 인생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인터뷰 질문을 바탕으로 인터뷰

Q. 유엔에서 근무하실 당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셨는데 무서우셨던 경험이나 고민거리가 없으셨나요?

A. 대부분 사람들이 유엔을 떠올리면 뉴욕과 같은 본부에서 화려한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유엔 활동의 80%는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총격이 발생하기도 하며 목숨을 위
협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러한 분쟁
지역에 주는 'excitement'에 중독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웠던 것 같
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일한다는 각오를 하고 근무지로 왔기 때문
에 위기에 대처해 위험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며 내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너무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아프가니스
탄에서의 근무가 끝나면 소말리아나 수단 혹은 시리아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Q. 대한민국의 평화 ·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최근들어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가장 큰 위험요소는 가짜뉴스**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경유착, 대북문제, 정치의 양극화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극화는 ‘양극화’라기 보다는 이전부터 ‘양극’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양극인 사회가 한국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제들에서 다른 진영의 편을 들면서 누군가의 눈에는 회색분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사실을 제대로 분석하여 자신의 결론을 내리는 것.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POL IN LOVE B조

감사합니다 ———